

종계, 자율조절 능력 상실로 적자폭 커진다.

□ 정리/김재서 기자



△ 경인축산 이광초 사장

외 환위기로 인한 IMF구제금융의 파장은 환율상승에 따른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위축 등에 의한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어 축산물 생산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의 상황을 상기하여 봄으로써 종

계·부화업계의 자구책을 찾아보고자 경인축산 이광초 사장을 만나 업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지금의 양계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계·부화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 지금은 위기를 넘어 눈을 감고 외줄을 타는 듯 합니다. 즉, 현안에 대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계업은 그동안 소득증대에 따른 꾸준한 소비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는 소비감소를 더 큰 폭으로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소비감소를 추정하여 이에 적절한 생산수준을 맞추어야 적어도 채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적정생산량을 유지하여 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즉, 한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이제는 외부적인, 혹은 내부의 구조적인 힘에 의해 물량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부화·종계장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것이 있다면?

▲ 지금 여건으로서는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하루하루 벌어지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개의 농장이 방만한 운영으로 규모를 늘려왔고, 자기자본율이 낮은 상태에서 회전자금의 마이너스를 부동산이 받쳐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평가절하되고 더욱이 현금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계속적인 차입에 의한 방법과 차입을 하지 않고 결제를 늦춰가며 이겨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이 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금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현금수입 밖에는 없는데 공급과잉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 종계장에서 생산비 절감 방안은?

▲ 소비가 감소되어 생산을 줄인다면 적자요소는 시설과 인원이 되겠지요.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산성 향상보다는 산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양을 값싸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좋은 계군을 입식하여 판매단가를 높이는 것도 경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료수급 상황과 환차손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 지금 최대 현안은 사료비로 거래실적이 매우 우수한 농장을 제외하고는 선입금과 함께 외상 매입금을 갚아나가야 사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료회사를 옮길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즉, 극복방법은 자금확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자금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금동원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공룡이 멸망해갔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생산비의 증가는 종란가에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산물인 닭고기와 계란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감소가 나타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원화가치 하락에 이은 환차손은 시설자금이나 리스를 이용한 분들이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리스의 경우 시설의 고급화를 위해 많은 지출을 하여 더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대처방안 모색없이 경영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 지금 상황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의 장기화

가 예상되므로 경영자의 변화가 난국을 헤쳐가는데 있어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십여년 전에 육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현장에서 함께하는 경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종계·부화업계가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자가, 주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농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경영식의 관리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의 방만한 운영방식과 생활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흘릴 때 진정한 경쟁력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계·부화업도 농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자가 생산에 뛰어들어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릴수 있는 기회를 모두 함께 공유할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결과적으로 양계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일수록 경영자의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위기극복을 위한 종계업의 대응 방안은?

▲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으로서 적절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고회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출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법이 모색되면

현재 국내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또한 함께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국내 수요를 정확히 파악,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생산유지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위축은 가져오겠지만 결과적으로 활성화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그외에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양계업자들은 외한위기 이후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보 또한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소비흐름을 파악하여 과감한 생산조절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맞는 시기적절한 경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비동향 변화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소비정보를 활용하여 타분야와의 연관을 고려한 생산경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영자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흑자경영을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지피지기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받기 위해 참여의식을 가지고 단결하는 적극성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